

碩士學位論文

接續詞의 品詞 設定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 泰 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金 錫 垣

2005年 8月

接續詞의 品詞 設定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 泰 琨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金 錫 垣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5年 7月 日

審 查 委 員 長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國文抄錄>

接續詞의 品詞 設定에 관한 研究

金 錫 垣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泰 琨

1963년 7월에 공포된 학교문법통일안에서는 접속사를 품사로 인정하지 않고 부사의 범주에 포함시켜 문장부사의 하위체계인 접속부사로 품사를 분류하였다. 이후 이 통일안은 중학교에서는 1966년부터, 고등학교에서는 1968년부터 실시하게 된다. 그 후 우리 국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의 9품사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등의 접속하는 말을 지칭하던 ‘접속사’라는 품사를 제외시켜 그 말들을 ‘접속부사’라는 부사의 하위범주로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품사론이라는 학문분야의 연구를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학교문법에서의 품사론의 정착이란 결론을 가져왔다. 그리고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당시의 품사분류문제에 있어서의 학자들의 대립과는 대조적으로 접속사를 더 이상 품사로 인정하지 않고 부사로 논의하면서 학교문법통일안의 내용을 보강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품사분류의 결과는 국어학 연구 분야만이 아니라 그 실제적 적용 대상인 학교문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문법교육이 지향하는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의 측면에서 논의의 대상인 접속하는 말에 대한 언급이 상당부분 누락되게 되었고 이는 곧 문법교육이 완성도가 떨어진 교육임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접속조사와 접속어미 이외의 접속하는 말들을 부사로 인정하거나 ‘접속사’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국어문법에서 접속사는 다수의 지지기반을 가지고 일정 기능을 담당해오던 품사다. 대명사보다도 더 많은 문법가들이 품사로 설정했었다. 1963년 학교문법통일안에서 제외된 이후 사실상 문법서술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의미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형태적·기능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문법적 구실을 하고 있는 품사다.

지금까지의 논의의 과정에서 언급한 ‘접속사’의 존재 근거를 통해 학교문법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국어문법연구의 지속적인 활성화 측면에서도 ‘접속사’에 대한 논의는 의미 있는 일이다.

目 次

<國文抄錄>

I. 序 論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방법	4
3. 연구사	4
II. 本 論	9
1. 전통문법에서의 접속사	9
1) <제1기> 도입 · 수용기(1900~1930): 품사분류의 수용	10
2) <제2기> 반성 · 모색기(1930~1946): 품사분류의 발전	11
3) <제3기> 정착 · 심화기(1946~1963): 품사분류의 정착	12
4) 시대별 품사분류 체계	14
2. 학교문법에서의 접속부사	18
1) 학교문법 성립과정과 배경	18
2) 접속어휘의 자질	22
3. 접속사 설정의 논거	25
1) 품사분류 기준의 문제	25
2) 문법 연구와 학교 교육에서의 문제	27
3) 논거제시 예문의 문제	28
4) 접속부사 분류 단어	31
5) 접속사 분류 단어	37
6) 접속단어의 품사체계	45
III. 結 論	48
參考文獻	50
Abstract	53

I. 序 論

1. 연구의 목적

1963년 7월에 공포된 학교문법통일안에서는 접속사를 품사로 인정하지 않고 부사의 범주에 포함시켜 문장부사의 하위체계인 접속부사로 품사를 설정하였다. 이후 이 통일안은 중학교에서는 1966년부터, 고등학교에서는 1968년부터 실시하게 된다. 그 후 우리 국어에서의 품사 체계는 명사·대명사·수사·동사·형용사·관형사·부사·조사·감탄사의 9품사 체계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등의 접속하는 말을 지칭하던 ‘접속사’라는 품사를 품사 체계에서 제외시키고 그 말들을 ‘접속부사’라는 부사의 하위범주로 포함시킨 것이다. 품사 설정의 학문적 근본은 차치하더라도 이는 결과적으로 품사론이라는 학문분야의 연구를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학교문법에서의 품사론의 정착이란 결론을 가져왔다. 그리고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당시의 품사분류문제에 있어서의 학자들의 대립과는 대조적으로 접속사를 더 이상 품사로 인정하지 않고 부사로 논의면서 학교문법통일안의 내용을 보강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품사분류의 결과는 국어학 연구 분야만이 아니라 그 실제적 적용 대상인 학교문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문법교육이 지향하는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분야에서 논의의 대상인 접속하는 말에 대한 언급이 부사에 대한 내용에서 상당 부분 누락되게 되었고 이는 곧 문법교육이 완성도가 떨어진 교육임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접속부사와 접속어미 이외의 접속하는 말들을 부사로 인정하고 ‘접속사’의 존재는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학교문법통일 이후의 문법체계인 현재의 9품사 체계를 10품사 체계로 설정하여 접속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통일안에서 설정한 품사 체계를 개편하여 접속부사로 설정할 단어들은 접속부사로 인정하고 접속사로 설정할 단어들에 대해서도 품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문법은 그 연구 태도에 따라서 모습을 달리 하는 종류로 나뉜다. 가령, 언어 현상을 있는 사실 그대로 기술(記述)·설명하느냐, 어떠한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옳고 그른 가치 판단을 가지고 설명하느냐, 이 두 갈래 길에서 두 가지로 나뉜다. 앞의 것은 구체적인 언어 사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체계화한 것으로서 학문문법(scientific grammar)이라 하며, 이에 대하여 뒤의 것은 현실의 언어생활을 바르게 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으로서 실용문법(practical grammar)이라 이른다. 그러므로 실용문법은 언어 사실의 객관적 파악이라는 문제보다도 어떻게 해야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쓰느냐에 더 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써야 한다.”고 판단 명령하는 성질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흔히 학교문법(school grammar) 혹은 규범문법(prescriptive grammar)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뒤의 것인 학교문법에서는 언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들어서 해명하자는 것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가공하여 된 표준어나 정서법(orthography grammar)의 규정에 혹은 정책면의 요구 등에 비추어, 규정된 모든 당위(當爲)의 사실을 실행하도록 교화한다. 학교문법이 어떠한 언어 사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하여, 학문문법은

비록 표준어나 정서법 등의 요구를 도외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언어가 역사적 습관의 한 산물이란 사실에 입각하여 언어학적 연구 방법을 따른다. 따라서 학교문법은 제 나라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의 학습에 소용되며, 학문 문법은 언어학의 완성을 위한 노력의 일면이 되어야 할 것이다.¹⁾

그렇다고 한다면 학문문법과 학교문법이 그 성격과 목적을 달리하기에 문법에서의 품사 분류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그렇기에 학교문법의 품사 분류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학문문법에서는 품사 분류에 대한 연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품사분류 문제는 언어학의 완성을 위한 학문 문법의 측면만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학교 문법도 품사분류에 있어 재고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첫째, 문법 연구에 있어서 완성도 높은 체계의 확립에 도움을 준다는 점. 둘째, 학교문법에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연구의 보완 자료가 된다는 점. 셋째, 국어사용에 있어서 보다 매끄러운 집필과 독해를 위한 필요조건을 제시한 점 등이다. 물론 학문문법 분야에서 제기되는 한 측면의 의견이기 때문에 문법 연구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편·타당성은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품사 분류 연구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나중 연구를 위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대립되는 두 의견에 대한 절충적 결론 제시가 아닌 품사 분류의 엄정성을 강조한 점에서 학교 문법의 변화 발전에 있어서 정확도와 완성도를 요구하는 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이 이 논문이 지닌

1) 문교부(1962), 「중·고등학교 국어문법 지도지침」, 문교부.

의의라 하겠다.

2. 연구 방법

접속사의 품사 설정을 통한 10품사체계 주장과 접속사 설정 단어, 접속부사 설정 단어의 정확한 구분을 위해 먼저 전통문법에서 품사체계로 인정해왔던 접속사 연구를 검토하여 이 연구에서의 문제제기가 타당함을 밝히고 학교문법에서의 접속부사 설정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접속단어들의 품사적 성격에 관한 고찰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접속사가 포함된 10품사 체계의 주장에 대한 논거로 첫째, 품사 분류 기준을 전제로 하여 접속사의 품사로서의 자질을 밝힐 것이다. 둘째, 문법 연구와 학교 교육에서 접속사와 관련된 연구와 논의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밝혀 접속사를 품사 체계에 포함하는 것이 완성된 품사 체계임을 주장할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의 접속단어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문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간의 연구에서 접속부사의 설정에 관한 주장이 불충분함을 밝힐 것이다. 넷째, 이러한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 접속부사 설정 단어와 접속사 설정 단어를 구분하고 예문의 제시를 통해 그 접속하는 단어의 쓰임이 각각 접속부사와 접속사의 설정이 타당함을 밝혀 접속사가 포함된 10품사체계를 제시할 것이다.

3. 연구사

국어학사에서 접속사를 접속부사로 본 것은 최현배 때부터이다. 「중

등조선말본』(1934)에서는 ‘또’, ‘그리고’, ‘및’을 부사로 보았고 『우리말본』(1937)에서는 부사를 ‘때 어찌씨(時間副詞)’, ‘곳 어찌씨(處所副詞)’, ‘모양 어찌씨(狀態副詞)’, ‘정도 어찌씨(程度副詞)’, ‘말재 어찌씨(話式副詞)’, ‘이음 어찌씨(接續副詞)’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 ‘이음 어찌씨(接續副詞)’를 앞에 간 말(대개는 월)을 이어서 그 뒤에 오는 말을 꾸미는 어찌씨를 이른다 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로는 정렬모(1946), 박태운(1948), 정인승(1956) 등이 있는데 최현배의 견해와 주장을 계승하는 소위 ‘말본과 학자들’에 의해 최현배의 품사분류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정렬모(1946)는 “접속사는 앞 말의 뜻을 빌어 이것을 자기의 뜻에 이용하여 뒷말의 뜻을 꾸미는 부사인데 마치 앞 말과 뒷말과를 접속하는 듯한 보람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면서 부사이기는 틀림이 없으나 반드시 앞 말에 붙어서 반식(伴飾)한다 하여 ‘반식부사’, ‘기생부사’, ‘꼴두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승녕(1954)은 부사에는 ‘접속부사’라는 것이 있어 용언의 접속법과 호응하여 그 접속의 구실을 돕고 때로 글 전체의 뜻을 뚜렷이 나타내는 구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정의하고, 그 예로 ‘혹시’, ‘또’, ‘비록’, ‘하물며’ 등을 들고 있다.

유목상(1970, 1990)은 소위 국어의 접속어는 구문상의 접속표지가 아니라 수사법상의 한 용법이므로 부사어의 한 갈래에 넣어서 다루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접속의 의미를 의미적 측면에서 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고영근·남기심(2001)은 ‘그리고’,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러

나’, ‘그렇지마는’의 6개를 접속부사로 보았다.

김미선(1998)도 ‘그-’ 계열의 접속하는 말들을 ‘접속부사’로 보아 각각의 형태와 의미를 분석하였으나 앞선 연구들에서처럼 접속하는 기능 위주의 설명이면서 품사는 접속부사로 보고 있다.

임유중 외(2001)는 접속하는 말들의 접속하는 기능 및 선·후행절 관계 등의 구문론적 특성을 다루면서도 접속부사로 품사 규정을 하였다.

이에 비해 접속하는 말을 ‘접속사’로 본 경우의 연구를 보면

유길준(1909), 주시경(1910)은 ‘접속사’를 하나의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여 ‘와/과’, ‘고’, ‘면’ 등과 같이 연결어미나 조사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필수(1923)는 접속사를 ‘~며’, ‘~나’, ‘~든지’ 등 주로 연결어미만으로 국한하고 있으며,

이상춘(1925)은 접속사를 ‘같은 갈래의 단어나 또 文語를 잇어 주는 토’라고 하고 있다.

이규방(1923)은 주시경 문법을 따라서 ‘와/과’와 같이 어구 중간에 들어가는 외에 새로이 話頭에 오는 것으로 ‘및’, ‘또’, ‘또한’, ‘그러면’, ‘그러나’ 등을 추가시켰다.

안확(1927), 이완웅(1929)에 이르러 ‘접속사’를 접속의 뜻을 나타내는 ‘와/과’와 같은 조어나 ‘고, 며’ 같은 연결어미를 제외시키고 실사만으로 분립시켰다.

박승빈(1937)은 ‘접속사’를 “言語의 中間에 介立하여서 單語, 句 또는 節을 接續하는 單語”라 하고 그 의의에 따라 연계(및, 또), 선택(또는,

혹은), 반의(그러나, 그래도), 추론(故로, 그러면), 조건(그러면, 그래)의 5종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접속사 의미를 유형에 따라 분류할 때 많이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심의린(1949)은 ‘와/과’는 체언을 연속할 때, ‘하고’, ‘하며’, ‘이며’ 등은 사물을 연속 나열할 때 쓰이는 ‘접속조사’라 하여 ‘단어 또는 文을 접속함에 쓰이는 ‘접속사’와 구별하였다.

이희승(1957)은 ‘접속사’는 체언의 격을 나타내는 말도 아니요, 용언을 한정하는 말도 아니며 반드시 그 앞말의 뜻을 받아서 뒷말과 접속시키는 구실을 한다고 하여 그 성질이 조사나 부사와 전혀 다르다고 보고 있다.

장정줄(1983)은 ‘그리고’를 접속사로 보아 품사분류에서 학교문법통일안에 반박하는 이론을 펴기는 했으나 ‘그리고’라는 순접의 기능에만 국한되어 다소 빈약한 품사론 주장의 면모를 보였다.

안주호(2000)는 ‘그리-’계열접속사의 형성과정과 문법화를 다루면서 ‘그리-’계열 어휘들의 접속기능을 설명하며 접속사의 인정을 강화하였으나 어휘의 형성과정에 치우친 연구로 접속사의 전체적인 존속·인정의 근거는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광정(2003)은 품사분류에 대한 객관적 고찰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접속사’의 존재여부를 인정하는 측면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앞에 있는 말을 이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어휘를 접속부사로 보거나 접속사로 각각 그 처리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어에서 접속표지는 어미와 조사-접속조사, 접속어미-만으로는 문장의 의미 완성도가 떨어지

므로 접속어를 취급함에 있어 의미상 수식의 기능보다는 구문 상 접속의 기능을 더 중시하여 접속사를 설정하고 접속부사로 인정할 어휘들을 구분하여 보다 정확한 품사분류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II. 本 論

1. 전통문법에서의 접속사

‘접속사’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단어로 이음씨라고도 한다. 자립어이며 격변화나 활용을 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접속사의 종류는 그 접속하는 뜻에 따라 ‘또(는)’, ‘더구나’, ‘혹은’, ‘하물며’ 등과 같이 나열의 기능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러니’, ‘그러면’, ‘따라서’, ‘다만’ 등과 같이 순접(順接)하는 것,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등과 같이 역접(逆接)하는 것이 있다. 접속사는 그 앞뒤 문맥에 따라 대등문을 연결하는 대등접속사와 종속문을 연결하는 종속접속사로도 나눌 수 있다. 어떤 학자는 접속사의 범위를 넓게 잡아 ‘이같이’, ‘이처럼’, ‘이렇게’, ‘이러나’ 등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최현배(崔鉉培)의 『우리말본』에서는 접속사를 한 품사로 보지 않고 부사에 포함시켜 앞의 말을 이어받는 일과 뒤의 말을 꾸미는 일을 하는 문장부사로 보았다. 이희승(李熙昇)의 『새 고등문법』에서는 접속사를 하나의 품사로 보았는데, 부사는 다음에 나오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를 한정하지만 접속사는 다음에 오는 글월 전체를 한정하며, 부사는 다음에 오는 말과 연결시켜주는 구실을 하지 않지만 접속사는 앞에 나오는 단어나 글월의 뜻을 받아서 다음에 오는 단어나 글월과 연결시키는 구실을 하므로 접속사가 따로 한 품사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국어의 품사 분류에서 접속사를 품사로 인정한 학자를 체계화 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²⁾

1) <제1기> 도입 · 수용기(1900~1930): 품사분류의 수용

① 김규식(1908) : 9품사 -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형동사, 후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② 유길준(1909) : 8품사 -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조동사, 첨부사, 접속사, 감탄사

③ 남궁억(1913) : 9품사 -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후치사, 토, 부사, 접속사, 감탄사



④ 주시경(1914) : 6품사 - 임, 움, 엇, 겹, 꺾, 잇³⁾

⑤ 김두봉(1916) : 9품사 - 임, 움, 엇, 겹, 맺, 언, 억,
잇, 늑

⑥ 이규영(1920) : 9품사 - 임, 움, 엇, 금, 만, 언, 억,
잇, 늑

⑦ 이필수(1922) : 9품사 -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2) 이광정(2003 : pp132-135)을 참고함.

3) '잇'이나 '닛말', '닛씨'는 '접속사'를 의미하는 품사분류의 명칭이다.

형용사, 조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⑧ 이규방(1923) : 13품사 -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금지사, 부정사, 호응사, 조사,
조동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⑨ 안 확(1923) : 10품사 -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조동사, 조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⑩ 강 매(1925) : 7품사 - 이름말, 움말, 말, 도움말,
것말, 닛말, 늑김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⑪ 이완응(1929) : 11품사 -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존재사, 조사, 조용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⑫ 이병기(1930) : 7품사 - 명사, 동사, 형용사, 조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2) <제2기> 반성·모색기(1930~1946): 품사분류의 발전

① 박상준(1932) : 9품사 -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조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② 장지영(1932) : 9품사 - 님씨, 움씨, 언씨, 겹씨, 땃씨,
언씨, 억씨, 닛씨, 늑씨

③ 박승빈(1937) : 12품사 -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존재사, 지정사, 조사, 조용사, 관형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3) <제3기> 정착·심화기(1946~1963):품사분류의 정착

① 홍기문(1947) : 10품사 -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후치사, 종지사, 부사, 접속사

② 김근수(1947) : 13품사 -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존재사, 지정사, 조사, 조용사,
관형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③ 이영철(1948) : 10품사 -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조사, 종지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④ 김윤경(1948) : 9품사 - 입씨, 움씨, 억씨, 겹씨, 땃씨,
언씨, 억씨, 잇씨, 늑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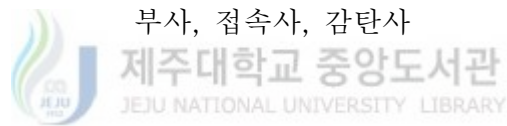
⑤ 심의린(1949) : 13품사 -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존재사, 지정사, 조사, 조용사,
관형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⑥ 정경해(1953) : 9품사 -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토, 부사, 접속사, 감탄사

⑦ 이희승(1956) : 10품사 -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존재사, 조사, 관형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⑧ 김민수(1960) : 7품사 - 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4) 시대별 품사분류 체계⁴⁾

품사	제1기		제2기		제3기		종합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1. 명사	12	100%	6	100%	17	100%	35	100%
2. 대명사	7	59	2	50	10	59	20	57
3. 수사	4	33	2	33	6	35	12	33
4. 동사	12	100	6	100	17	100	35	100
5. 형용사	12	100	6	100	14	82	32	91
6. 존재사	1	8	1	17	3	18	5	14
7. 지정사			2	33	2	12	4	11
8. 형동사	1	8					1	3
9. 조용사	1	8					1	3
10. 금지사	1	8					1	3
11. 부정사	1	8					1	3
12. 호응사	1	8					1	3
13. 조사	8	67	6	100	11	65	25	71
14. 후치사	2	16			2	12	2	6
15. 어미전체	7	58	3	50	2	12	12	34
16. 종결어미	3	25	1	17	3	18	7	20
17. 연결어미	1	8	1	17	1	6	3	9
18. 관형사	2	17	3	50	14	82	19	54
19. 부사	11	92	6	100	17	100	34	97
20. 접속사	12	100	3	50	9	53	24	69
21. 감탄사	11	92	6	100	17	100	34	97

위의 표는 앞서 품사분류를 연구했던 학자들의 분류체계를 도표화

4) 이광정(2003 : pp136-137) 참조

한 것으로 제1기는 1900년부터 1930년까지의 품사분류를 수용하던 도입·수용기이고 제2기는 1930년부터 1946년까지의 품사분류를 발전시킨 반성·모색기이며 제3기는 1946년부터 학교문법이 통일되던 1963년까지의 품사분류가 정착된 정착·심화기를 가리킨다. 그리고 각각의 체계는 문법 연구를 하고 품사를 분류한 학자들 개개인의 체계를 1체계로 보아 명사의 경우 12체계와 100%란 말은 12명의 학자가 품사분류를 연구하였고 12명 전체가 명사를 품사분류에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접속사의 경우에는 제1기에 12체계 모두 인정하여 100%를 보이고 있으며 2기에는 품사체계를 연구한 6명의 학자 중 3명이 주장하여 50%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3기에 와서는 17체계 중 9체계로 53%의 비율을 나타내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69% 비율의 학자들이 접속사를 품사로 설정하여 주장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의 품사체계 즉 학교문법통일안의 품사체계가 우리 문법 연구의 흐름과는 거리가 멀게 채택되었으며 접속사보다 비율이 낮은 대명사(57%), 수사(33%), 관형사(54%)는 현재 품사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 결과는 현재의 9품사체계가 문법연구의 흐름, 학자들의 연구업적과 다르므로 접속사라는 품사의 제외에 대하여 반박할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이광정(2003 : pp137-138)은 이 표에서 지적하기를 전 기간 동안에 21개의 품사분류가 설정되는데 이중의 대부분은 전반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품사라는 것이다. 물론 명사, 동사, 형용사, 조사, 부사, 감탄사처럼 절대적인 비율로 품사체계에 포함된 품사도 있지만 형동사, 조용사, 금지사, 부정사, 호응사 5품사는 단 한 사람의 품사체계에서만 보이는 것이고, 후치사, 지정사, 존재사 등도 소수의 지지를 받을 뿐이

라고 언급하면서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품사는 보편성을 띤 국어의 품사다.’라는 가설을 제시하여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접속사의 종합적 지지가 69%로 국어의 보편적 품사로 인정할 만하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 내용을 품사별로 보다 쉽게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와 같다.

도입기		수용기		정착기		종합	
시대별 자료	보편화 자료	시대별 자료	보편화 자료	시대별 자료	보편화 자료	시대별 자료	보편화 자료
명사	명사	명사	명사	명사	명사	명사	명사
-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
-	-	-	-	수사	-	-	-
동사	동사	동사	동사	동사	동사	동사	동사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	-	관형사	관형사	관형사	관형사	관형사	관형사
부사	부사	부사	부사	부사	부사	부사	부사
접속사	접속사	접속사	접속사	-	접속사	접속사	접속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종지사	-	-	-	-	-	-	-
8품사	8품사	9품사	9품사	9품사	9품사	9품사	9품사

위의 표⁵⁾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말 품사 분류의 대표적인 체계는 품사 수에 있어서 8품사 또는 9품사 체계가 된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두 11개의 품사 중 종지사의 경우는 제1기

5) 위의 표에서 시대별 자료와 보편화 자료는 각각 1900년부터 1930년까지의 도입기, 1930년부터 1946년까지의 수용기, 1946년부터 1963년까지의 정착기에 해당하는 품사분류 체계들의 비율을 기준으로 과반수가 넘으면 보편화 자료로 인정을 하였고 정착기의 경우만 학교문법통일안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통일안의 품사분류에서 제외되면 보편적으로 과반수 이상 인정한다 하더라도 시대별 자료에서는 제외되었다. 접속사의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에 지지를 받았다가 사라지고, 수사의 경우는 정착기의 시대자료에만 등장한다. 그리고 접속사의 경우는 정착기에 잠시 빠지지만 전체적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 따라서 1960년대를 기점으로 살펴볼 때 전 시대를 대변하는 품사체계는 종합부분에 제시된 ‘명사·대명사·동사·형용사·관형사·부사·접속사·감탄사·조사’의 9품사 체계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문법연구사에 등장하는 모든 연구자들의 견해를 수렴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결론지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러한 산술 평균적인 결과와 함께 언어 내면적인 특성과 연구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법 분야는 학자들의 논의와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는 모어화자(母語話者)들의 문법적 직관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학자들이 이 단어들을 지칭할 품사를 이렇게 정하였으니 이렇게 쓰도록 하자고 하여도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문법적 직관력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론이라면 그 둘 사이에는 충돌이 생겨 언어 사용자들은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쉬운 예로 다음의 문장을 문법분야의 전공자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읽힌다고 하자.

철수는 밥을 먹었다. 그리고 우유도 마셨다.

위의 보기는 두 문장 사이에 있는 ‘그리고’의 역할을 알 수 있는 예문이다. 그리고 많은 국어 사용자들은 ‘그리고’라는 단어를 앞의 ‘철수는 밥을 먹었다.’와 뒷문장인 ‘우유도 마셨다.’를 이어주는 접속의 기능

으로 이해한다. 여기에서 ‘그리고’를 뒤의 문장의 내용에 대하여 하등의 수식 기능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법적 직관력은 읽기에서 만이 아니라 쓰기에 있어서도 ‘그리고’ 등의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목적을 ‘접속’에 두지, ‘수식’에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속사’에 대한 의견을 전개함에 있어 학교문법을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어휘를 ‘접속사’가 아닌 ‘접속부사’로 보고 있는지 학교문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접속부사’에 대하여 그 지정의 성립과정과 근거들을 살펴보면서 접속사의 품사적 자격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2. 학교문법에서의 접속부사

1) 학교문법 성립과정과 배경⁶⁾

(1) 배경

문법통일에 대한 쟁점은 1949년부터 이미 배태되었다. 문교부에서는 ‘명사’ 등의 한자식 이름과 ‘이름씨’ 등의 고유어 명칭 사용을 동시에 허용하였다. 또한 문법체계는 각 개인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950년대 후반 들어와서야 입학시험에서 제기된 일선 교단의 통일 문법에 대한 여론을 바탕으로 통일문법 작성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후 1961년 10월부터 1966년 12월까지 5년간에 걸쳐 ‘접속부사 주

6) 정준섭(1995),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 (pp. 102-106) 등 참조.

장 학자들(학교문법)'과 '접속사 주장학과(전통문법)'의 용어문제를 중심으로 격렬한 문법논쟁이 벌어진다.

1961년 10월 14일자로 군사정부 최고회의의 문법통일에 대한 지시를 받은 문교부는 동년 12월 8일 국어과 교육과정 심의가 끝난 자리에서 문법가들로 하여금 그 방안을 성안케 하자는 결정을 보았다.

이후 문교부 편수국은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의견 조사 과정을 통해 문법통일에 대한 다수의 지지를 확인하게 되었다. '국어학회'에서는 동년 1월9일 통일안 지지에 대한 건의를 문교부에 제출하였고, '국어국문학회'에서는 1962년 1월 9일 임시총회를 열어 지지를 표명하는 종합된 의견을 최고회의에 건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62년 교과서부터 학교문법을 통일하라는 최고회의의 지시를 1월에 재차 받은 문교부에서는 2월에 그 성안에 착수하였다.

시간적인 문제로 1962년부터 실시할 수 없음이 양해되고, 1962년 3월 7일 학교문법통일 준비 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하였다. 초안의 내용은 품사체계를 9품사로 할 것과 용어는 한자와 고유어를 절충하되 품사명칭을 한자식으로 할 것 등이었다. 이에 최현배는 문법용어에 대하여 맹렬히 반대하며 3월 13일 반대의 내용을 문교부에 건의하였다. 이는 바로 한글학회의 입장 표명으로 대신하게 된다.

이 준비위원회의 안 가운데 쟁점은 품사명칭에 쏠려 '국어학회'와 '국어국문학회'는 지지를 표명하였고, 한글학회는 반대에 나서게 되었다. '국어국문학회'는 같은 해 10월 7일 제5회 전국대회에서 이를 주제로 재차 토론하여 12월에 다시 문교부에 건의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문교부는 1963년 2월 1일 국어교육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학계와 당국의 의견을 협의하게 된다. 논의의 초점은 '국어교과서의 국정교과

서 해제와 학교문법통일'이었다. 이 가운데 문법 문제만이 채택되어 3월18일부터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정식으로 토의되기 시작하였다. 이 날 3월7일에 작성한 준비위원회이 안인 9품사 안이 채택되었다. 4월 3일에는 단어의 소속 품사와 통일된 용어를 결정할 차례였는데 위원구성이 편파적이라고 최현배가 퇴장하는 바람에 중단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방안을 찾은 것이 전문위원회의 구성이었다.

(2) 전문위원회 구성

1962년 4월 10일 교육과정위원회는 문법교과서 저자 8명과 국어교육 관계자 8명 등 16명으로 전문위원을 구성하게 된다. 국어교육 관계자의 선정은 박창해, 이응백, 조문제가 전형위원이 되어 선정하였다.



① 문법교과서 저자

최현배, 이희승, 김윤경, 정인승, 이송녕(渡美 중 대리 이기문), (김민수·남광우·유창돈·허웅)의 공저자 중 1명, 장하일, 최태호: 계8명

② 국어교육 관계자

유제환(한글학회), 박창해(연세대), 윤태영(한성고), 이훈중(청량중고), 이응백(서울사대), 김형규(서울사대), 강윤희(이화여대), 이희복(문교부): 계8명

등 16명으로 되었으나 이승녕의 대리인에게는 표결권을 주지 않고, 공저자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15명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접속부사 주장 학자들과 접속사 주장 학자들의 비율은 7 : 8이지만, 공저자 중에서 접속부사 주장 학자로 교체되거나 비저자 중에서 한 명쯤 전향시킬 경우 역전될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전문위원들은 1962년 4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12차례의 회의를 거쳐 학교문법통일안을 작성하여 교육과정심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962년 4월 30일 제6차 회의에서 “접속사는 설정하지 않는다.”를 재석 14에 8 : 6으로 채택하였다. 이광정(2003)에 의하면 당시의 품사분류 결정은 접속부사 주장 학자들과 접속사 주장 학자들의 기득권 싸움에 가까운 논쟁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때의 품사결정은 문법의 보편적 근거나 일반적 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닌 국어학 연구의 두 흐름에서 힘이 강한 쪽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법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은 그대로 학교문법 교과서에 채택되었고 오늘날까지도 학교문법교과서는 물론 국어의 품사분류 등 어디에서도 ‘접속사’란 말을 찾아 볼 수가 없다. 통일안 제정 이후의 학자들은 장정줄(1983), 안주호(2000), 이광정(2003) 정도가 ‘접속사’의 품사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그 이외의 문법연구자들은 기존의 ‘접속사’였던 어휘들을 ‘접속부사’로 인정하고 오히려 그 타당성을 강화시키는 쪽의 논지가 일관되고 있다. 이는 1962년 4월 30일의 회의에서 찬반이 8 : 6이었다는 결과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하는 흐름이다.

그러면 1963년 이후 학자들은 왜 20년 이상 ‘접속사’를 품사분류체계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제시를 하지 않은 것일까? 필자의 소견으로는

1963년 학교문법통일은 비단 문법의 통일만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한 일종의 ‘견해에 대한 평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만일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 추측이라면 앞서 연구목적에서 언급한 학교문법통일 이후의 문법연구 침체현상은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 된다. 따라서 ‘접속사’의 존재여부 결정 한 가지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 이후 ‘접속사’에 대한 연구는 이미 논지의 힘을 잃고 더 이상의 반론 제기는 대세를 거스르는 행위처럼 취급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결정의 과정에 있어 드러나는 비합리성은 단순히 하나의 품사를 없어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서 도입부에 언급한 것처럼 문법연구의 큰 맥을 끊어놓는 결과까지 야기하게 된 것이다.

2) 접속어휘의 자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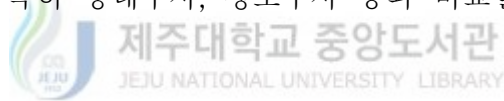
접속하는 말들은 국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자격을 갖고 있는가의 논의에서 그 품사적 성격이 ‘접속사’에 가까운지 ‘부사’에 가까운지를 논의 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 핵심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 등의 말들은 형태와 의미에 대한 연구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장정줄(1983)은 ‘형은 키가 크다. 그리고 동생은 키가 작다.’라는 문장에서 ‘그리고’가 ‘對立’의 의미를 지닌다는 견해를 보이고 김미선(1998)은 이것을 ‘나열’의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곧 ‘접속부사’와 ‘접속사’의 두 측면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그 말들의 기능이 수식인가, 접속인가의 측면에서 그 비중을 달리함에 따라 양분된 것이다. ‘접속부사’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선행문의 내용을 의미상으로 연결시켜주면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언급하고 ‘접속사’를 인정하는 측면에서는 반대로 어느 정도 문장을 수식하는 기능과 더불어 앞뒤 문장의 접속의 기능에 비중을 두고 있다. 접속과 수식의 기능을 이중적으로 지닌 어휘에서 비중을 판단하는 시각에 따라 품사 결정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장에서 접속하는 말들의 수식 기능은 어느 정도 인정하여 일부의 어휘들은 부사로 지정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외의 ‘그-’ 계열의 어휘들은 ‘결코’, ‘만약’ 등의 부사들 보다 수식의 기능이 확연하게 미약하며 특히 상태부사, 정도부사 등과 비교할 때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진다.



- 가. 철수는 키가 크다. 그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 나. 철수는 키가 크다. 그러나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 다. 철수는 키가 크다. 그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간다.
- 라. 철수는 키가 크다. 그러나 몸무게는 많이 나간다.

‘그-’ 계열의 어휘들은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선행문과 후행문의 사이에서 ‘키가 크다.’ 거나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라는 내용적 측면과는 크게 관련 없이 두 가지의 사실을 연결시키며 제시하는 측면의 성격을 강하게 보이고 있고 철수의 키와 몸무게에 대한 화자나 필자의 개인적 견해나 적절한 체격에 대한 의미적 측면은 ‘그리고, 그러나’ 의

순접, 역접에 의해서 만이 아니라 ‘-가’, ‘-는’ 이라는 조사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접속하는 말은 어떤 성격으로 접속하느냐의 차이가 존재하여 그 성격이 후행문장에 앞문장과의 관계상의 규정을 해줄 뿐이지 ‘수식’이라는 부사의 근본적 성격은 약하다고 판단된다.

‘접속사’를 부사계열로 볼 때 김미선(1998 : pp94-97)의 경우 ‘그러나’를 ‘그러+하나’의 파생으로 분석하면서 ‘讓步’의 뜻을 나타낼 때에 ‘그러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도’(though)란 의미로 대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문장에서 ‘그-’계열의 어휘들의 후행문장에 대한 수식의 기능이 상당히 강한 예문들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실질적인 학교 문법교육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중학교 과정에서 문법분야를 다루고 있는 <생활국어>교과에서 ‘품사분류’는 3학년 2학기 5단원에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문장부사’와 ‘접속부사’에 대한 언급자체가 미약하여 ‘부사’를 단순히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주는 품사로 소개할 뿐이다. 그리고 중등과정에서는 접속하는 말(역접, 순접, 전환)에 대해서는 ‘접속조사’에서만 문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문법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접속부사’에 대한 언급이 지나치게 미약하다. 만일 접속하는 말들을 ‘접속부사’라고 확정하였다면 분명히 품사분류에서 자세히 언급했어야 했고, 그 말들은 접속의 기능과 수식의 기능도 인정하는 것이 학교문법통일안의 기본 골자여서 비중 있는 품사인데 소개가 미약한 것은 완성도가 떨어진 문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3. 접속사 설정의 논거

1) 품사분류 기준의 문제

유목상(1990 : pp130-131)은 문장이나 구절 또는 단어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설정하여, 五言에 연결언을 보태어 접속어를 세울 수도 있다고 보고 부사의 한 갈래로 접속부사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행문법에서의 맹점은 부사의 기능에 '접속'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접속어'란 성분을 설정하는데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 품사가 성분이 되려면 그것이 관념어이어야 한다는 근거 아래 접속어는 형식어이기에 국어의 접속법에 어긋나므로 접속사로 세우거나 접속어로 보고 있는 것들을 부사어의 갈래에 넣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국어에서의 품사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의미, 기능, 형식의 셋을 든다. 의미(뜻, meaning)란 개별단어의 어휘적 의미가 아니라 형식적 의미로서 어떤 단어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움직임이나 성질·상태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다. 기능(구실, function)은 한 단어가 문장 가운데서 다른 단어와 맺는 관계를 가리킨다. 그리고 형식(꼴, form)이라고 함은 단어의 형태적 특징을 의미한다.⁷⁾

김미선(1998 : pp105)은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리고' 등의 접속어휘들의 품사를 접속부사로 보면서 각각 어휘들의 형태와 의미를 분석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는 '그러하다'의 활용형이 굳어져 파생된 단어로

7) 남기삼·고영근(2001),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하’가 축약되어 서술성을 잃고 어휘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어휘들은 대립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쓰이면서 그 개별 의미에 따라 ‘대조’와 ‘양보’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조’의 의미를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의미 내용이 반대되거나 모순되어 서로 대비 되는 것’이라 하고 ‘양보’의 의미를 전술한 내용에 대해 일단은 인정해 주고 나서 반대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 분석은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의 어휘들에 대해서 문장 간의 관계 속에서 특정한 의미를 지닌 어휘로 보고 그 틀에 적용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연구이다. 그러나 접속어휘는 앞 문장과 뒤의 문장 사이에서 의미를 지니며 존재하기 보다는 연결 관계를 구성하며 존재하는 것이다. 그 근거는 그 어휘들이 문장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을 때와 생략했을 때 의미의 차이 혹은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면 의미 기능으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생략했을 경우에 앞 문장과 뒤의 문장은 그 연결이 매끄럽지 못할 뿐 피수식이나 의미 혹은 의미의 정도가 변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리고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대조’와 ‘양보’는 의미상의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 맞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는 ‘대조’와 ‘양보’ 보다는 ‘역접’, ‘전환’의 기능이 더 강하다.

곧 김미선(1998 : pp123-130)은 이 연구에서 ‘역접’, ‘순접’, ‘인과’ 등의 (접속)이나 (관계)를 내포한 말들의 사용을 피하면서 접속관계보다는 수식의 의미 쪽으로 연구의 방향을 일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등의 어휘 연구에 있어서도 ‘그러-’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어미 ‘-어서’, ‘-니까’, ‘-므로’가 붙어 생긴 어휘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들을 ‘원인’이 아닌 ‘이유’로 보

면서 (因果關係)라는 용어에서 ‘因’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정함으로써 접속사의 자질보다 부사의 자질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2) 문법 연구와 학교 교육에서의 문제

접속단어들의 성격을 논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어의 완성도를 높이는 길이 어떤 것이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도입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문법과 학문문법은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학교문법은 학문문법에 비해 실용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용성이 문법의 엄정성의 선은 넘지 말아야 하며 품사체계가 간단할수록 사용이나 교육은 편하겠지만 국어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양상임은 분명하다.

국어는 ‘음운’으로 시작하여 ‘형태소’, ‘어휘’, ‘성분’, ‘문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단락 단위 그리고 그 이상의 완결된 글 모두가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 여기서 접속어휘를 부사의 범주로 본다거나 접속사라는 품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국어의 범주를 문장까지라고 생각하는 결과이고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단락이나 단락이 모여서 이루어진 전체 글에서는 접속사라는 품사의 역할이 명백해지고 그 역할 또한 연결의 기능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학교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독해력과도 직결된 사항으로 한 편의 글을 이해할 때 ‘접속사’는 앞 뒤 문장, 상위·하위 단락 간의 위상을 분명히 결정지어주고 문맥의 흐름을 매끄럽게 해준다. 여기에서 혹자는 문장, 단락 간의 위상 결정이나 문맥의 흐름이 연결 기능보다는 의미 기능 쪽의 언급이 아닌가하고 의

아해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접’, ‘역접’, ‘인과’등 단순 연결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나열 접속’, ‘반대되는 내용의 접속’, ‘원인에 대한 결과문의 접속’등 접속사가 지니는 본래의 기능을 전제로 말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입시에서 ‘언어영역’ 이나 ‘논술’에 있어서 지문과 제시문의 독해에 많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의 극복을 많은 입시 전문가들은 문장 간의 관계와 단락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접속어휘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최근의 학교 문법을 배운 학생들은 접속어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다른 어휘들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원인을 학교 문법의 체계에서 찾게 만들고 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의 우려처럼 접속사의 품사설정을 ‘일문법’이나 ‘영문법’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근원이나 영향의 문제를 차치하고 우리 국어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품사라는 것이다.

3) 논거제시 예문의 문제

접속사를 인정하는 학자들과 접속부사를 인정하는 학자들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특징은 품사의 설정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예문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즉 접속사를 인정하는 학자들의 예문은 아래 예문의 (가), (나), (다)처럼 접속어휘의 본래의 기능을 밝히기 위해 둘 이상의 문장 사이에서 혹은 문장 내의 어휘의 연결 상에서 접속어휘를 제시하는데 비해 접속부사를 주장하는 학자

들의 예문은 (가)’, (나)’, (다)’ 처럼 그 위치를 문장의 서술어 자리에 넣거나 앞 내용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넘기는 지시어의 위치에 넣어 제시하기도 하고 논의의 대상인 ‘그-’ 계열의 어휘에 대한 예문이 아닌 부사로 인정할 만한 어휘들 위주로 예문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가) 철수가 학교에 간다. 그러나 영희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

(나) 철수는 미술부이다. 그리고 영희는 문예부이다.

(다)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 그렇지만 영희는 철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가)’ 이 그림이 아름답다. 저 그림도 그러하다.

(나)’ 옷을 끼입을 때는 차라리 팔이 없는 조끼가 더 효율적이다.

(다)’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였어?

결국 ‘접속사’와 ‘접속부사’를 주장하는 두 부류의 의견은 그 근거에 있어서도 사실상 객관적인 기준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접속사’냐 ‘접속부사’냐의 품사적 성격으로는 거리가 먼 두 품사의 틀 안에서 이 어휘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논문에서 필자는 현행 학교 문법에서 ‘접속부사’의 존재를 전면 부인하거나 그 어휘들을 모두 ‘접속사’로 묶어서 보자는 것은 아니다. 국어의 정확하고 매끄러운 사용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매끄럽게 글을 쓰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접속부사’로 볼 것은 ‘접속부사’로 보아서 연구, 교육적 적용을 하고 ‘접속사’로 보아야 할 것들은 ‘접속사’로 보아서 품사 설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연구, 교육적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이 가지게 되는 국어학적 의의에 대한 언급은 뒤로 미루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이러한 판단 및 근거에 의해 ‘접속부사’로 보아야 할 어휘와 ‘접속사’로 보아야 할 어휘들을 구분하고 그 어휘들이 사용된 예문을 통해 품사 설정의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접속사’로 세울 수 있는 말들과 ‘접속부사’로 인정해야 할 말들을 학교문법통일안이 제정되기 직전의 이희승(1961)의 『국어대사전』에서의 품사분류를 일부 참고·검토하고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한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논의의 대상인 어휘들에 대한 품사결정의 근거를 제시한다.⁸⁾

먼저 연구의 대상인 접속하는 어휘들을 놓고 볼 때 필자는 기존의 접속사였다가 1963년 ‘접속부사’로 처리된 어휘 모두를 다시 ‘접속사’로 품사 전환시키자는 측면보다는 보다 명확한 연구와 근거 제시를 통하여 일부의 어휘는 그대로 ‘접속부사’로 인정을 하고 15개 정도의 어휘들을 ‘접속사’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8) 이희승은 이 사전에서 다른 학자들이 부사로 잡고 있는 <왜냐하면, 이를테면, 하기가>까지 접속사로 잡아 엄정하고 보편타당한 품사분류는 아니라는 판단 하에 전면적인 참고는 피하였다.

4) 접속부사 분류 단어

여기에 제시한 ‘그-’계열 어휘와 ‘그-’계열 이외의 어휘들은 문장에서
서의 기능을 볼 때 수식의 기능도 상당부분 인정되므로 ‘접속부사’로
보아도 타당하기에 ‘접속부사’로 분류를 하고 이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
겠다.

<‘그-’계열 어휘>

그러하여, 그러고, 그러니 저러니, 그러하도록, 그렇게, 그렇듯이, 그리
도, 그러한즉, 그런대로

<‘그-’계열 이외 어휘>

결국, 과연, 드디어, 마침내



(1) 그러하여

(가) 박영식은 자신이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하여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나) 그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여섯 골을 넣었다. 그러하여 그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위의 예문 (가)에서 ‘그러하여’는 앞 문장의 ‘최선을 다한다.’의 내용을 뒤의 문장으로 잇는 접속의 기능을 하면서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

이라는 뒤의 내용을 연결하고 있는데 ‘그러하여’에는 ‘최선을 다하였기에’라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위한 전제 조건의 의미가 내포 되어 있고 ‘성공할 것이다.’라는 후행문의 용언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접속의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의미상의 역할을 수반하기에 접속부사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나)의 예문에서도 앞의 문장에서 ‘여섯 골을 넣었다.’라는 전제하에 뒤의 문장에서 ‘인기가 높아졌다.’는 내용이 성립되기 때문에 (가)의 예문에서처럼 전제 조건과 결과의 관계를 가지므로 역시 ‘그러하여’를 ‘접속부사’로 보는 것이 옳다는 논거의 예시가 된다.

(2) 그리고

(가) 너 아직도 집에 안가고 계속 그리고 있을 거야?

(나) 나는 아직도 그리고 있는 너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를 않아.

이때의 ‘그리고’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존재하면서 접속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위의 예문처럼 문장의 중간에서 ‘집에 안가고’ 있는 행위의 의미를 받아서 용언 ‘있을’을 수식하고 있다. 이 경우는 (1)의 ‘그러하여’보다도 수식의 기능이 훨씬 강하여 ‘접속부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러니 저러니

(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니 저러니 하지 마라.

(나) 이번 결정에 그러니 저러니 하는 사람은 다음 번 회의 때
표결권을 주지 않겠다.

(다) 남의 집안일에 그러니 저러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여기에서의 ‘그러니 저러니’는 ‘그리고’와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문장
사이에서 접속의 기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문장 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혹은 ‘曰可曰否’의 뜻으로 사용되어 ‘하지 마라’의 내용을 수식
하고 있으므로 ‘접속부사’로 보아야 한다.



(4) 그러하도록

(가) 내가 너를 그러하도록 내버려 둘 것 같아?

(나) 동생이 여태까지 그러하도록 너는 뭐했니?

(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하도록 내버려둔 친구가 더 미워졌
다.

이때의 ‘그러하도록’은 문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화자 혹은 필자가
원치 않는 청자·독자의 상태·행동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도록’의 의미를 지닌 ‘그러하도록’은 ‘내버려 둘 것 같아?’와 의미상 긴밀하게 연관되므로 ‘접속부사’로 보아야 한다.

(5) 그렇게

(가) 네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

(나) 아무리 그가 한 짓이 껄뽀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다) 3년 전 우리는 제주도의 해변에서 만났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시작되었다.

위의 예문에서 ‘그렇게’는 문장의 중간에서나 두 문장 사이에서 모두 쓰일 수 있으며 어떠한 사실이나 행동의 양상을 지시하는 표현으로 (가)의 예문에서는 문장의 의미가 ‘그렇게’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가 있고 (나)의 예문의 경우에는 (가)의 예문처럼 문장 내용의 결정과 더불어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이중의 수식 기능을 한다. (다)의 예문에서는 단순히 앞 문장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사건을 동시에 설명하는 즉 ‘3년 전’이라는 시간과 ‘만났다.’라는 사건을 모두 의미하는 중요한 수식 기능을 한다 하겠다.

(6) 그렇듯이

(가) 언제나 그렇듯이 아침을 알리는 것은 전화벨이었다.

(나) 남자가 그렇듯이 여자도 술을 마시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렇듯이’는 ‘그러하듯이’의 준말로 (가)의 예문에서는 ‘그렇듯이’가 ‘언제나 전화벨이 나에게 아침을 알렸다.’는 문장 전체의 내용이 지시적으로 제시된 단어로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됨을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하고 있다.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술을 마시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내용을 담아 여자의 경우에 포함시키는 의미 기능을 하면서 문장 내에서는 의미에 영향을 주는 수식의 기능을 하고 있다.



(7) 그러한즉

(가) 네 생각이 그러한즉 우리는 이 일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

위의 예문에서처럼 ‘그러한즉’은 ‘그러하므로 곧’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그러하므로’라는 연결 기능의 단어에 ‘즉’이 붙어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이 중요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기능이 있다 하겠다.

(8) 그런대로

(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마음에 들어.

이때의 ‘그런대로’는 ‘접속부사’로서의 수식 기능을 잘 보여주는 경우 중 하나로 마음에 드는 정도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즉, ‘마음에 든다.’라는 내용을 한정하고 꾸미는 기능을 하므로 ‘접속부사’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계열 이외의 어휘로는 ‘결국, 과연, 드디어, 마침내’가 있다.

(9) 결국

(가) 철수는 숨을 거두었다. 결국 그렇게 되고야 만 것이다.



(나) 나는 결국 대학을 포기하기로 했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결국’은 둘 이상의 문장 사이와 문장의 내부에서 모두 사용되는 어휘이다. 그리고 이 어휘는 ‘그렇게 되고 말았다.’와 ‘대학을 포기하기로 했다.’라는 ‘최종의 결론’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용언의 ‘그럴 수밖에 없음’을 수식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과연’은 ‘예상했던 대로’, ‘짐작대로’의 의미를 지니며 용언을 수식하고 ‘드디어’와 ‘마침내’에서는 ‘시간적 의미’와 더불어 ‘기대’의 심리를 반영하면서 문장 내에서의 수식의 기능을 담당한다.

5) 접속사 분류 단어

연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어휘 중에서 ‘접속부사’로 인정하는 어휘들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쓰이기 어려워 연결 및 접속의 기능을 요구할 수 없거나 문장 내에서의 수식의 기능의 뚜렷한 경우들이다.

여기에서는 반대로 문장 내부에서 쓰이기보다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사용되면서 접속의 기능을 주로하고 수식이나 의미 기능보다는 ‘순접’, ‘역접’, ‘전환’, ‘인과’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어휘들을 제시하여 먼저 ‘접속사’라는 품사를 품사 분류에 포함시키고 이 어휘들을 그 어휘의 범주에 넣는 것이 타당함을 예문을 통해 밝힐 것이다.

<‘그-’계열 어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래서, 그러나, 그러니, 그러면, 그러므로, 그러자, 그런데, 그럼, 그렇지만, 그리고

<‘그-’계열 의외 어휘>

또, 또한, 및

(1) 그래서

(가) 어제는 비가 많이 왔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꽃이 활짝 피었다.

(나) 물은 화려하고 값비싼 외장으로 걸러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필터로 걸러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 정수기는
과감하게 불필요한 외장을 버렸습니다. (정수기 광고)

(다) 나는 어려서 무서움을 잘 땀다. 그래서 늘 머리맡에다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주석으로 만든 용감한 병정들을
늘어놓고야 잠이 들었다. (피천득, 인연 : 69)

(라) 자동차는 인간의 생명을 싣고 달리기에 사소한 실수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00여 대의 로봇이 한 치의 오차
없이 만듭니다. (자동차 광고)



위의 예문에서 ‘그래서’는 앞의 선행문과 후행문을 인과의 관계로 접속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문어체의 문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접속의 어휘이다. (가) 예문에서의 ‘그래서’는 ‘접속부사’로 인정했던 다른 어휘들과는 달리 앞의 후행문의 용언에 의미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문장의 내용인 ‘비가 많이 왔다’를 받아서 ‘비가 많이 와서’라는 ‘접속어미’의 기능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래서’라는 어휘가 의미상의 구실이 아닌 접속상의 구실을 강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래서’는 ‘접속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러나

(가) 철수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성적은 좋지 않았다.

(나) 지하철 상품 벽보 광고의 한국식 영어 나열은 가관이다.

그러나 그런 광고의 표현 자유는 억지로 규제할 수 없다.

(다) 그녀는 오른손을 내밀어 내게 악수를 청했다. 그러나 나는 악수를 하지 않았다.

(라) 차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드십시오.

위의 (가) 예문에서 ‘그러나’는 선행문인 ‘철수는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사실을 받아서 ‘그래서’와 같은 인과의 관계가 아닌 반대의 경우 즉 ‘역의 내용’을 접속하는 ‘역접’의 기능을 하고 있는 어휘로 ‘그래서’의 경우처럼 문어체의 문장에서 주로 사용된다.

만일 위의 문장에서 후행문의 내용이 ‘성적이 좋았다.’가 되려면 중간에 놓이는 단어는 ‘순접’이 아닌 ‘인과’ 곧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자’, ‘그런즉’, ‘그러니까’ 등이 오는 것이 타당한 어휘의 사용이며 이때 예문에서의 ‘역접’ 의미를 지닌 접속사 또한 ‘그러나’ 이외의 ‘그렇지만’, ‘그런데’로 사용해도 무방한 경우이다.

그러나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는 그 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이어주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그 연결이 달라질 수도 있기에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특히 ‘그런데’는 두 어휘에 비해 ‘역접’보다는 ‘전환’이라는 새로운 내용으로의 전개

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 어휘이기 때문이다.

(3) 그러니

(가) 아버지는 늦게 오신단다. 그러니 먼저들 자거라.

(나) 내가 분명 그 사람에게 그 말만은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건만 그러니 그가 거절을 할 수 밖에 없지.

(다) 이번 시험 결과에서 너는 불합격의 점수를 받았다. 그러니
더 준비를 하여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해라.

이 예문에서 ‘그러니’는 전행문의 ‘이유’ 때문에 후행문의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연결하고 있는 구어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휘로 인과 관계와는 성격을 약간 달리하여 접속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와 ‘그러니까’는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어휘이지만 ‘그러니’를 사용할 경우와 ‘그러니까’를 사용할 경우의 화자가 표현하는 결과의 당위성 정도가 달리 표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는 ‘결과’에 대한 ‘이유’의 제시를 비교적 약하거나 완곡하게 드러내는 어법의 어휘이고 ‘그러니까’는 ‘그러니’에 비해 다소 강한 ‘이유’를 제시하는 어휘이다.

물론 이 어휘들은 ‘이유’와 ‘결과’라는 의미연결 때문에 일반적인 ‘인과 관계’의 접속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인과 관계’에서의 ‘원인’은 의도하거나 예측 가능한 사실이 올 경우가 많고 그 결과에 있어서 자

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비해 ‘그러니’, ‘그러니까’가 사용되는 ‘이유’의 경우에는 ‘화자의 의도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사실’로 인해서 오게 된 결과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즉 앞문장과 뒤의 문장을 어떤 식으로든 매끄럽게 이어주려는 연결 기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선행문의 내용을 받아 후행 문으로 ‘이유’를 전달하고 있기에 ‘접속사’로 보는 것이 타당한 어휘들인 것이다.

(4) 그러면

(가) 철수가 안 왔구나. 그러면 네가 대신 발표를 해라.

(나) 이번에 만난 사람도 맘에 들지 않는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거니?

(다) 지난번에 갔던 곳이 숙박시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의 예문에서 ‘그러면’은 앞 문장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는 ‘방법상의 변화’나 ‘내용상의 변화’를 나타내며 앞 문장과 뒤의 문장을 잇는 구실을 한다. 여기에서 그 기능이 내용과 관련되어 부사의 기능처럼 보이거나 하나의 문장에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고자 할 때 쓰이는 단어이므로 ‘접속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그러므로

(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므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나) 아기가 젖병을 문 채로 잠을 자면 치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유식은 떠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 각 나라의 입장으로 보면 어느 전쟁이든 정당한 전쟁이며 어느 나라나 신이 있다. 그러므로 하느님 보고 이기게 해 달라고 빈다면 하느님은 어느 나라 기도를 들어줘야 하겠는가.

(라) 21세기는 많은 인구나 지하자원보다 사람의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국제 경쟁력이 되는 시대. 그러므로 '앞으로 세계의 중심은 한국이 된다.'라는 말이 그리 과장된 표현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창의의 나라'하면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문들에서 보듯이 '그러므로'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원인'과 '결과'라는 유기적인 연결 관계로 이어주는 접속의 구실을 하고 있다.

(6) 그러자

(가) 영수가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위의 예문의 ‘그러자’는 앞의 ‘그러므로’와 같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원인’의 상황에 대한 ‘결과’의 내용을 예상하지 않은 상태의 내용이 오는 문장관계에서 주로 사용된다.

(7) 그런데

(가) 학교에 늦지 않았다. 그런데 도시락을 놓고 왔다.

(나) 140억의 두뇌 세포는 생후 24개월까지 98%가 급속하게 발육하는 특이성이 있어서 영아기에는 다량의 DHA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젖에는 10mg 내외의 DHA가 함유되어 있으나 순 우유에는 DHA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위의 예문의 ‘그런데’는 앞 내용에 대한 ‘역접’이나 ‘전환’의 기능을 하면서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있다.

(8) 그럼

(가) 집에 아무도 없다고? 그럼 난 어디로 가지?

위 예문의 ‘그럼’은 ‘그러면’의 줄인 표현으로 앞 내용에 대해 ‘방법상의 변화’가 첨가됨을 나타낸다.

(9) 그렇지만

(가) 철수는 키가 작다. 그렇지만 농구를 곧잘 한다.

(나) 옥석을 가리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한번 옥석을 가려보자.

(다) 신한국당이 승리를 거둔 것은 서울에서이고 물론 이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신한국당의 승리는 아니며 특히 YS의 승리라고 할 수는 없다.

위의 예문의 ‘그렇지만’은 ‘그러나’와 더불어 ‘역접’의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접속사로 앞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내용상 상반되고 이렇게 상반된 문장이 연결됨을 보인다.

(10) 그리고

(가) 여기에는 시집, 소설책, 수필집 그리고 몇 권의 잡지가 있습니다.

(나) 나는 잠시 눈을 감고 늙어가는 내 주변의 여자들을 생각했다. 맨 먼저 어머니를 다음엔 고모와 이모를. 그리고 역시 그 과정을 거쳐갈 내 친구들 그리고 나. (신경숙. 깊은 숨을

월 때마다)

위의 예문에서의 ‘그리고’는 ‘순접’, ‘나열’의 기능을 하면서 앞의 내용에 대등하게 이어지는 새로운 내용의 제시 이전에 연결의 기능으로 ‘그리고’가 나타난다. 따라서 연결, 접속의 기능을 하고 있는 접속사로 보아야 한다.

(11) 또한

(가) 그는 학력도 좋고 **또한** 실력도 있다.

‘또한’은 앞의 내용과 더불어 새로운 내용의 첨가를 나타내는데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내용이 이어짐을 전제로 하는 접속단어이다.

(12) 및

(가) 문학에는 시, 소설, 수필 **및** 희곡이 있다.

‘및’은 그 사용의 여부에 있어 학자들 사이에 異見이 많은 단어로 여기에서는 그 사용 여부는 차치하고 앞 내용과 뒤 내용의 대등적 나열을 성립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접속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6) 접속단어의 품사체계

지금까지의 논지 전개를 토대로 연구의 대상인 접속을 나타내는 단어들의 품사를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접속사
- 순접 - 그리고
 - 역접 - 그러나, 그렇지만
 - 전환 - 그런데
 - 인과 -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자
 - 나열 - 및
 - 첨가 - 또한
 - 조건 - 그러면, 그럼



VI. 結 論

국어문법에서 접속사는 다수의 지지기반을 가지고 일정 기능을 담당해오던 품사였다. 대명사보다도 더 많은 문법가들이 품사로 설정했다. 1963년 학교문법통일안에서 제외된 이후 사실상 문법서술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의미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형태적·기능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문법적 구실을 하고 있는 품사다.

따라서 접속사를 품사체계에 포함시켜 문법연구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현재의 접속하는 단어의 품사설정에 관한 연구는 ‘접속부사’와 ‘접속사’의 두 측면의 주장으로 나뉘어 본질적으로 그 말들의 기능이 수식인가, 접속인가의 측면에서 그 비중을 달리함에 따라 양분되었다. 접속부사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선행문의 내용을 의미상으로 연결시켜주면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언급하고 접속사를 인정하는 측면에서는 반대로 어느 정도 문장을 수식하는 기능과 더불어 앞뒤 문장의 접속의 기능에 비중을 두고 있다. 접속과 수식의 기능을 이중적으로 지닌 어휘에서 비중을 판단하는 시각에 따라 품사 결정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접속사의 품사 설정을 통한 10품사체계 주장과 접속사 설정 단어, 접속부사 설정 단어의 정확한 구분을 위해 전통 문법에서 품사체계로 인정해왔던 접속사 연구를 검토하여 이 연구에서의 문제제기가 타당함을 밝히고 학교문법에서의 접속부사 설정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접속단어들의 품사적 성격에 관한 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접속사가 포함된 10품사 체계의 주장에 대한 논거로 첫째,

품사 분류 기준을 전제로 하여 접속사의 품사로서의 자질을 밝혀 보았다. 둘째, 문법 연구와 학교 교육에서 접속사와 관련된 연구와 논의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밝혀 접속사를 품사 체계에 포함하는 것이 완성된 품사 체계임을 주장하였다. 셋째, 지금까지의 접속단어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문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간의 연구에서 접속부사의 설정에 관한 주장이 불충분함을 밝혔다. 넷째, 이러한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 접속부사 설정 단어와 접속사 설정단어를 구분하고 예문의 제시를 통해 그 접속하는 단어의 쓰임이 각각 접속부사와 접속사의 설정이 타당함을 밝혀 접속사가 포함된 10품사체계 중에서 ‘접속부사’와 ‘접속사’의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진행된 논의의 과정에서 언급한 ‘접속사’의 존재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학교문법의 완성도의 측면이나 국어문법연구의 지속적인 활성화 측면에서 그리고 국어사용의 완성도에 기여하기 위해 ‘접속사’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할 품사라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4), 중학교 3학년 생활국어 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2004),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2004), 교육과정해설서.

이희승(1961),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논저>

고영근·남기심(1987/2001),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김경훈(1977), “국어의 부사 수식 연구”, 『국어연구』 37, 국어연구회.

김미선(1998), “접속부사 연구-(I),(II),(III)”, 『어문연구』 26-2(9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김민수(1960), 『국어 문법론 연구』, 통문관.

박선자(1996), 『한국어 어찌말의 통어 의미론』, 집문당.

박선자(1983), “한국어 어찌말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승빈(1937), 『간이조선어문법』, 조선어학 연구회.

박태운(1948), 『중등국어문법』, 경성인서사.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부.

심의린(1949), 『개편 국어문법』, 세기과학사.

안 확(1927), 『조선어문법』, 박문서관.

안주호(2000), “‘그러-’ 계열 접속사의 형성과정과 문법화”, 국어학 35.

유길준(1909), 『대한문전』, 육문관.

유목상(1970), “접속어에 대한 고찰”, 『한글』 146호, 한글학회.

- 유목상(1990), 『한국어문법 이론』, 일조각.
- 이규방(1923), 『신편 조선어법』, 이문당.
- 이광정(1986), “국문법초기의 서양인의 품사연구”, 『경원대논문집』 5.
- 이광정(2003), 『국어국문법연구 I: 품사』, 역락.
- 이석규(1988), “현대 국어 정도 어찌씨의 의미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녕(1954), 『고전문법』, 을유문화사.
- 이완응(1929), 『중등교과 조선어 문전』, 조선어 연구회.
- 이은희(1993), “접속관계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모 외(2001), “문장 간의 인과성 및 인과적 접속사의 출현 여부가 글 이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 이필수(1923), 『정음문전』, 조선정음부활회.
- 이희승(1956), 『중등문법』, 박문출판사.
- 임유중 외(2001) “접속부사의 구문론적 특성”, 『언어학』 28, 한국 언어학회.
- 장기열(2003), “국어 접속부사의 특성과 그 기능”, 『福祉行政研究』 19.
- 장정줄(1983), “접속사(그리고)연구”, 『어문학 교육』 제6집.
- 정교환(1987), “국어문장부사의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렬모(1946), 『신편 고등국어문법』, 한글문화사.
- 정인승(1956), 『표준 중등말본』, 신구문화사.
- 정준섭(1995),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
- 주시경(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최낙복(1991), 『주시경 문법의 연구』, 문성출판사.

최재희(1989), “국어 접속문의 구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현배(1937/1977), 『우리말본』, 정음사.



<Abstract>

**A study on establishment of a word class of
conjunctions**

Kim Suk W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d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a Professor. Tae-Gon Kim

In the School Grammar Unification Bill proclaimed on July, 1963, conjunctions are regarded not as a word class but as a class of adverbs. They are classified as conjunctive adverbs which is subordinate position of sentence adverbs. After this, it had been executed in the middle schools since 1996 and in the high school since 1968.

Afterwards, Korean word class was classified into 9 components, which are nouns, pronouns, numerals, verbs, adjectives, prepositions, postpositions, and interjections. The conjunctions indicating connective words such as 'but, and, so, etc' were excluded in the word class and those words were included into the subordinate category of adverbs called 'conjunctive adverbs'. This finally caused ending the study on the theory of a word class and fixating the theory of the word class in the school grammar. According to lots of the recent studies, conjunctions were considered not as a word class contrary to the conflict of scholars about the problem on classification of a word class at that time but as an adverb and the content of the School Grammar Unification Bill was just supplemented.

The result of the classification of a word class influenced not only a field of the researches on Korean linguistics but also the school grammar that it might be actually applied to. With the respect to proper

understanding and practice about the Korean Language that the grammar education aims for, the reference to conjunctive words, which are the object of the discussion, was omitted considerably. This implies that the degree of complete education on grammar is debased. Nevertheless, many scholars recognize the conjunctive words except conjunctive postpositions and conjunctive endings as adverbs or deny the existence of conjunctions.

In the Korean grammar, a conjunction is a word class in charge of the specific function that is based on plenty of scholars' support. More grammarians regarded it as a word class than a pronoun. Since it was excepted from the School Grammar Unification Bill in 1963, in fact, it had been caused to exclude the explanation of grammar. However, it is an important word class in the morphological and functional aspects as well as the semantic aspect.

This paper aims at helping improve the degree of complete grammar in the school throughout the basis of the existence of conjunctions mentioned before. Besides, it is worth discussing the conjunction in terms of activating the study on the Korean grammar continually.